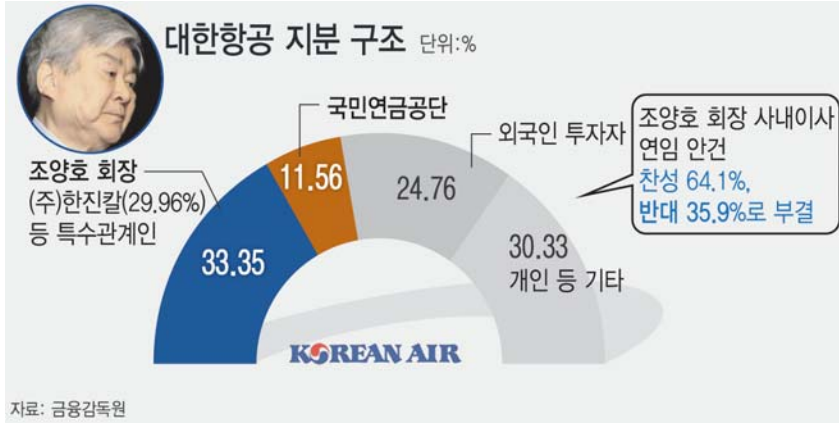


# ‘갑질의 나비효과’...조양호 회장 대표직 퇴출 결정타



### 주주총회서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실패 ‘대한항공 상징’이었지만 표면적으로 물러나 한진칼 지분 있으므로 경영권 박탈은 아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56% 보유하고 있어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33.35%)에 이은 2대 주주다. 대한항공 정관상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내이사를 재선임할 수 있다.

(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여기에는 조 회장 외에 부인과 세 자녀의 논란이 부른 여론 악화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기내 면세품을 총수 일가가 지배한 케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중개수수료 196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법상 배임)로 기소되는 등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10~2012년 인건 중구 인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표대결을 앞두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에서 일군 업적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래 항공·운송 사업에서 45년 이상 종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는 1999년 올랐다. 1980년 2차 오일쇼크 당시에 항공기 구매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1997년 외환 위기에 따른 영향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대한항공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들이 회원인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집행위원회(BOG) 위원 31명의 집행위원회 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의 전략정책위원회(SPC)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IATA 총회 개최에도 기여했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오너일가의 일탈 행위와 별개로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지만,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조양호 일가의 지분이 없어 경영권이 박탈됐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항공 주식 지분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은 28.7%다. 한진그룹은 한진칼-대한항공·한진(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총회 의장인 우기훈 대표이사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박탈이 결정된 사내이사 연임의 건 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조양호 사라지는 대한항공...조원태 경영 전면 나서나

### 경영 일선 오너 일가 영향력 감소 불가피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려오며, 조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경영 보폭이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개최한 대한항공의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참석 주주 중 64.1%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이후 20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사내이사인데, 주총 결과에 따라 대한항공 경영진에는 오너 일가 중 조 사장만 남게 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이 대한항공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조 회장의 경영권 박탈로 불수는 없지만, 경영 일선에서는 오너 일가의 영향력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 회장이 물러나면서 대한항공은 조원태 사장과 우기훈 대표이사 부사장 2인 체제로 꾸려질 전망이다. 유일한 오너가 일원인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경영능력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항공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체질 개선을 꾀하는 한편, 오는 6월1일 서울서 열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제75회 연차총회(AGM)의 개최에 공들이고 있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된 항공업계 변화 대응과 보잉 737 맥스8의 도입 차질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조 사장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지난 50년 동안 결코 쉽지 않은 도전과 성취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 수 많은 분들 덕분"이라며 "이제 회사는 우리 임직원에게 보답한다는 자세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나눌 것이며, 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대우할 것"이라며 소통 경영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 주관



으로 항공업계의 UN회의라 할 수 있는 IATA 연차총회까지 개최하게 됐다"며 "이 같은 도전과 성취의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불발에 따른 체제 변화에 대해 대한항공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 소식에 한진그룹 일제히 '상승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잃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은 표대결에서 찬성 64.1%, 반대 35.9%로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4월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조 회장의 연임이 무산됐다는 소

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진그룹 관련 종목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한진(002320)은 조 회장 퇴진이 알려진 직후 11시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210원(5.77%) 오른 3만8500원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대한항공(003490)도 같은 시각 전 거래일보다 700원(2.16%) 오른 3만3100원에 거래됐다. 한진칼(180640)도 650원(2.54%) 오른 2만6250원, 진에어(272450)는 600원(2.71%) 오른 2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